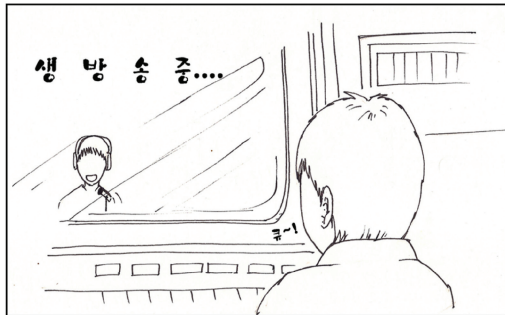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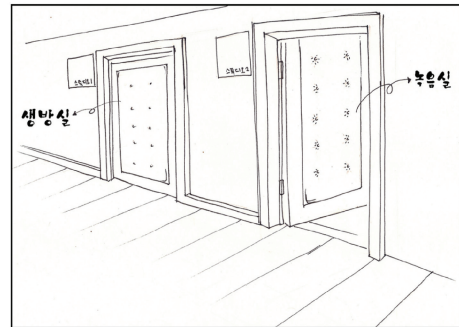


방송야사

우리 회사는 제1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생방송을 진행하고 제2 스튜디오에서는 오후 6시 정시 뉴스만 생방송을 진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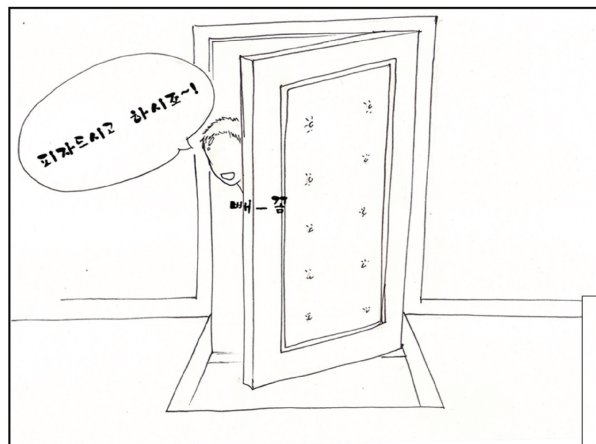
제2 스튜디오는 6시 뉴스만 빼고는 주로 녹음 방송실로 이용하는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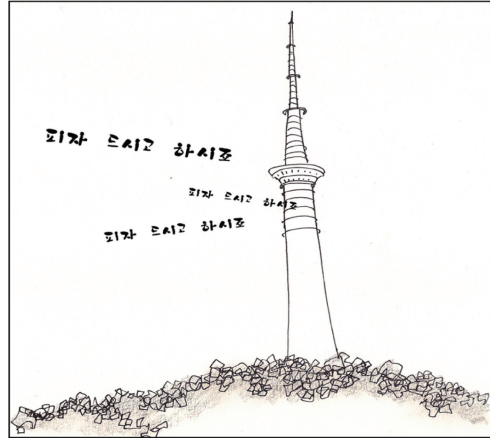
그 날도 어느 때와 같이 오후 6시 뉴스를 제2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었다. PD의 큐사인에 맞추어 시그널이 울리고 보도국 앵커 멘트가 시작되었다.

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, 정치부의 심각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갑자기 부조정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개그맨 박모씨가 공손하게 이러는 것 아닌가!

⋮



순간 우리들은 황당함에 할말을 잃었다.
 하지만 뭔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
 이미 그의 말은 전파를 타고 방송되어 버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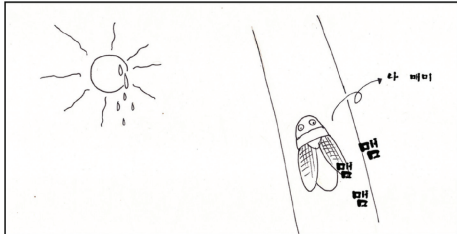
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.



그는 2시에 있었던 생방송 진행을 마친 후, 다음 날 프로그램을 녹음하러 남아있었는데
 6시 즈음에서 녹음이 끝나자 평소 인심 좋기로 소문난 그가 스텝들에게 저녁을 대접하려 했던 것이다.

그렇다.
 평소에 본인이 녹음을 하던 곳이라 생방송인 줄 몰랐던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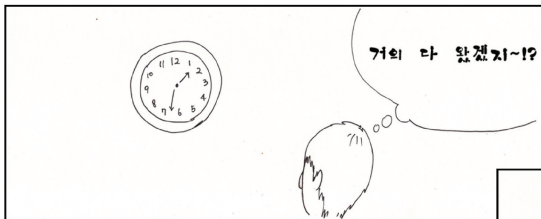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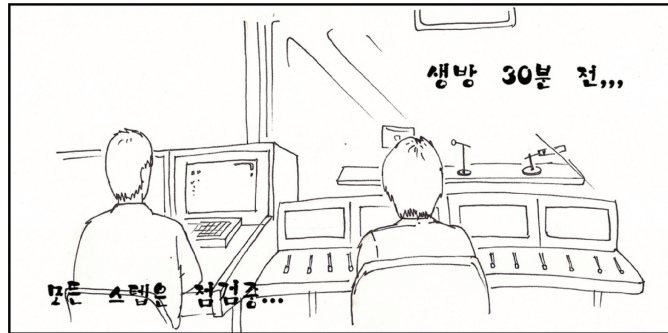
방송야사



햇벌이 따갑던 8월의 어느 여름날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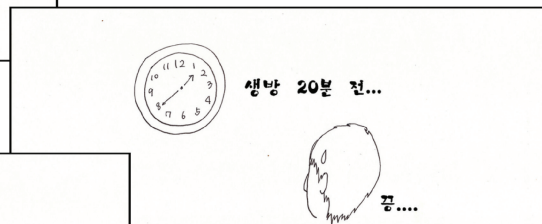
2시부터 시작되는 라디오 생방송 준비에 엔지니어, PD, 작가를 비롯한 모든 스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.

완벽하게 스텐바이를 하고,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꽃을 피우며 진행자를 기다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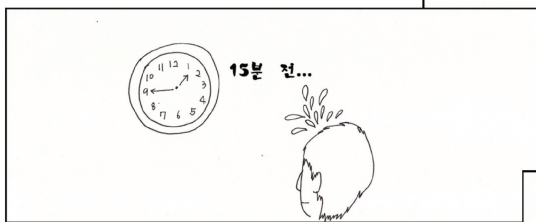


방송시작 30분전, 그러나 진행자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.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던 그였는데...

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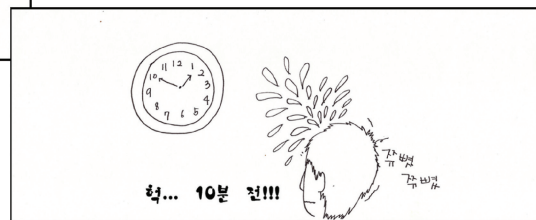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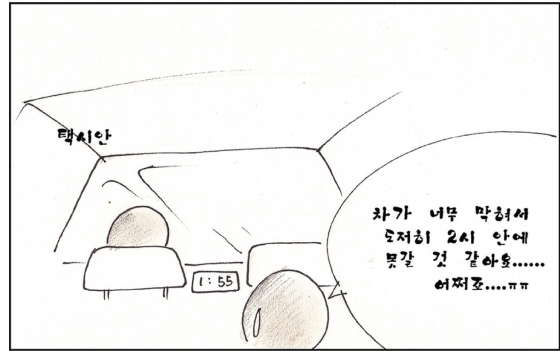
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.



방송 10분 전까지도 진행자가 도착하지 않자,

마음이 급해진 작가는 그제서야 안절부절하며 전화를 걸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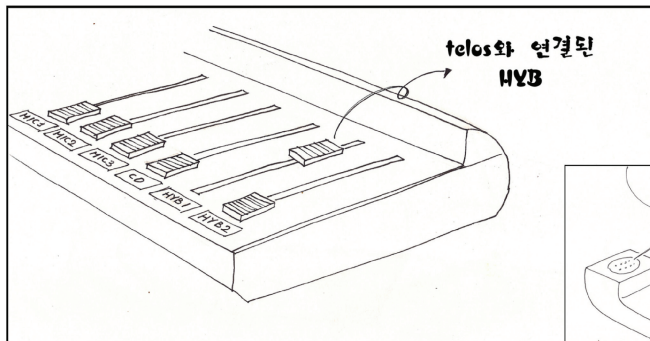


연락이 닿자마자 어디쯤이나고 다급히 물었는데, 글썸.....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 차가 너무 막힌다는 것이었다.



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을 때, 엔지니어가 제안했다.
“라디오니까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목소리만이라도 나오게 합시다..”

olleh~!!



그렇게 베테랑 엔지니어의 노하우로 티나지 않게(?) 오프닝을 마칠 수 있었다.

